

美 공격적 경기부양 나설 때... 양적완화 종료는 시기상조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샌디에이고 박봉권 특파원】 “미국 양적완화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게 갈 것이다.”
미국 경제석학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논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로고프 교수는 “지금쯤 출구전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연중 양적완화를 한층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을 더욱 공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적완화 조기 종료 논란 자체가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 재정이슈 해결을 위해 로고프 교수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로고프 교수는 “최근 미국 정치권을 보면 선진 정치는커녕 국가 기능이 마비된 그리스나 이탈리아 의회를 보는 것 같다”며 “공화당이 국가재무 상한선을 올리는 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기술적으로 미국 경제 디폴트(technical default)를 내는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폴트로 인해 미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 중대사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밀고 당기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줘야 비이성적인 정치권 다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로고프 교수의 생각이다. 다음은 로고프 교수와 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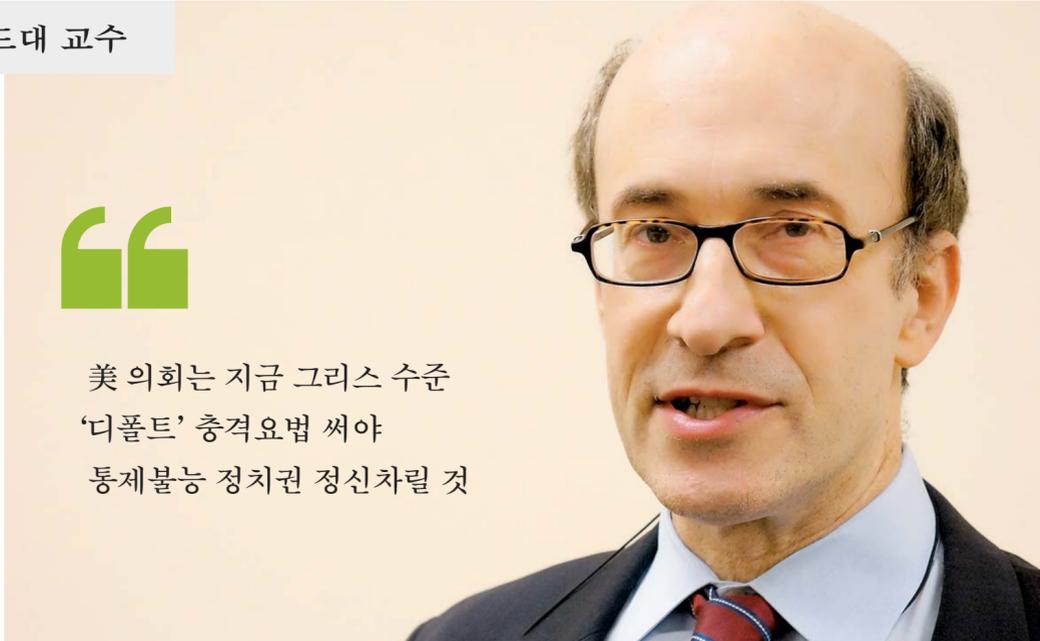
—미국 채무상환 상황 조정이 데드라인 안에 가능한 것으로 보는가.

▶ 쉽지 않다. 지난해 8월 채무상환 협상 때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은 최악이었다. 양보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테러리스트와 교신하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협상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들이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국가 부도가 날 것이다”고 말이지. 현재 공화당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분오열된 상태다.

—벤 버냉키 연중 의장이 금리정책을 실행할·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연동했다.

▶ 이전에는 똑같은 정책을 펼쳐면서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번에 금리정책에 실행·인플레이션을 연동시킨 것은 정책 측면에서 개선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플레이션 목표 2.5%가 너무 낮은 점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미하고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현 시점에서는 일부러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정치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대를 2.5% 위로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목표를 3~4%대로 올리는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써야 한다고 본다. —인플레이션 유발전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으로



美 의회는 지금 그리스 수준
‘디폴트’ 충격요법 써야
통제불능 정치권 정신차릴 것

인플레 통해 집값 끌어올리면 소비에도 도움

인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채 축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인플레이션이 주택값 상승으로 연결돼 주택시장에 더 큰 모멘텀을 줄 수 있다.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많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집값을 끌어올리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이 위협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양적완화 조기 종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과도하게 레버리지가 쌓인 경제가 저성장기에 직면해 있고 재정정책 손발이 묶여 있고 오히려 긴축으로 향하고 있다면 연준이라도 보다 공격

적인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연준이 강력한 양적완화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연준은 지급준비를 조작을 통해 이 같은 불안감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신용국들이 양적완화를 약달러 유도를 위한 음모로 보고 있다.

▶ 미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리세션에 빠지는 것을 어떤 나라든 원치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가 활황이 돼야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시장에 수출을 크게 늘려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면 다른 나라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용국들의 염려와 달리 앞으로 달

러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더 많은 나라가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조치를 따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권버블 붕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 채권투자 위험성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채권 거품 붕괴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다. 채권 거품이 터지려면 중국 등 신용국들이 미국 자산 매입을 동시에 중단하거나 대거 매도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금리가 떨어질(채권값 상승)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 물론 올해 최적의 투자대상을 꼽으려면 채권보다는 주식을 고를 것이다. 양적완화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상품과 부동산도 괜찮을 것 같다.

□ 로고프 교수는 체스로 예일대 특례입학... 스티글리츠 교수와 설전 유명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유력한 미국 대표 경제석학 중 한 명이자 세계적인 환율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출생으로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버클리대, 프린스턴대를 거쳐 현재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이력만으로도 보면 전형적인 책벌레 같지만 로고프 교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체스(사양장기)에 푹 빠져 있었다. 세계체스대회에 미국 대표로 출전할 만큼 발군의 체스 실력을 발휘했고 예일대도 체스 덕분에 특례입학을 정도다.

로고프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2001년부터 2년6개월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할 때다. 특히 2002

년 7월 28일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열린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의 ‘세계화와 그에 대한 불만’ 출판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스티글리츠 교수를 몰아붙인 일화는 큰 화제가 됐다. 당시 스티글리츠 교수가 “한국 등 금융위기에 국제한 IMF 고금리·긴축재정 처방전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비판하자 청중석에 있던 로고프 교수가 벌떡 일어서 “당신은 허풍쟁이”라며 스티글리츠 교수를 원색적으로 비판해 큰 소란이 빚어진 바 있다.

로고프 교수가 2010년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심층분석서 ‘이번엔 다르다’는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다.

글로벌 경기 급반등은 없다

【샌디에이고 박봉권 특파원】 “2013년 글로벌 경제는 변동성이 크게 줄어든 채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가 그리스 디폴트(채무상환 불능), 스페인·이탈리아 재정위기 확산, 미국 재정절벽·더블딥 불안감 등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올해는 지난해만큼 큰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2008년 9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5년째로 접어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안정권으로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V자 급반등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안정되고는 있지만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로고프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쌓인 민간분야 부채가 여전히 국가부채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

美경제 올 2.5% 성장 유로존 정체 불가피

다”며 “민간·국가 과다채무(big overhang of debt)가 글로벌 경제의 강한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 로고프 교수는 “재정적자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실물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2~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로고프 교수는 “이 같은 성장을 이 관측은 수치이긴 하지만 1200만명의 실업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채 협상 등 정치적 교착 상태와 관련해 로고프 교수는 “막판 합의로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 아래로 떨어지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무수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며 “부채상환선 상황 조정, 세계개혁 등이 어떻게 풀릴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치권이 합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정긴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정긴축을 완화할 만한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발 성장 모멘텀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가 지속적으로 양적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로존 경제에 대해 로고프 교수는 “지난해 홍역을 치른 유럽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위기를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들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로고프 교수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올해 대규모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재정긴축 후유증 때문에 올해 유로존 경제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장정체를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로고프 교수는 “재정통합 없이는 유로존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로존은 한 나라처럼 더 강력하게 통합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로고프 교수는 “유로존을 유지하기 위해 변방 유로존 국가를 모두 안고 감지 아니면 일부를 퇴출시킬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만약 모든 국가를 꺼내고 간다면 앞으로 20년간 유로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을 섬긴 유학자, 존경 받는 조선 최고의 리더가 되다 | 경쟁과 욕망에 찌든 현대인의 정신을 위로한다

퇴계처럼 살고 싶다

30년 경제 관료,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리하게 짚어낸 퇴계의 리더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으로 있는 김병일 전 장관이 지난 몇년 퇴계의 삶이 뿌리내렸던 현장을 답사하고 문헌기록을 분석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그의 놀라운 삶을 되살렸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생활인 퇴계'의 모든 행적은 대목대목마다 경탄을 자아내고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조선 최고의 리더십을 만난다

출간 즉시
교보문고 | YES24
인터파크 | 알라딘
베스트셀러

퇴계처럼

한국국학진흥원 교양총서 | 오래된 만남에서 배운다 01

김병일 지음